

전남은 AI 클러스터 최적지...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시급

광주일보 73주년 제19호

<5>AI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전의 영역이 됐다. 기존 산업구조가 AI를 기반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자본은 AI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로 몰리고 있다. 결국 AI가 앞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AI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 AI 클러스터 구축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전남은 AI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이 가진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로 대 표되는 풍부한 전력, 용수, 지진 안전성 등 때문이다. 전남도는 AI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열악한 도 내 경제상황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 선 상태다. 특히 AI 클러스터 구축에 동반되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 득'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지원 서둘러야=해남 산이면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AI 시대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갈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5조원을 들여 솔라시도 내에 3GW(기가와트) 급 AI 데이터센터와 ESS시스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솔라시도가 지역 혁신거점 조성의 최적 지로 변모하려면 다양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메가 샌드박스' (산업 단위 규제유예)가 시급하다.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남의 경우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혜택도 동반되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뿐만 아니라 솔라시도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취득세, 관세 면제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변전소 구축도 필요하다. 1차적으로 154kV변전소(500MW 공급)를 구축한 뒤 3.5GW 용량이 공급 가능 한 345kV변전소 구축이 필요하다.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구축 총력
세제혜택 통해 외국인 투자 증대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이끌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와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의 차등 요금제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밖에도 AI 허브 내에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

◇에너지 고속도로 전남, 에너지 신도시로=에너지 고속도로란, 전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남 곳곳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남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싼 값에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남은 전력은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을 보내, 전남과 수도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형 송전망이 깔려야 한다. 지금도 전남 재생에너지가 발전량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건 계통 포화 문제 때문이다. 해남에서 경기 용인권역으로, 또 해남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초광역선로를 구축한다면 총 6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하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에 'RE100' 전력이 공급된다면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또 4GW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9GW 남해안 남중권 HVDC 해저케이블을 공용망 구축도 시급한 문제다.

AI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이룰 수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23GW급 발전원을 통해 도민 1인당 연간 57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있다. 이미 가정사실화면 상태로, 오는 2035년까지는 발전원을 30.2GW까지 늘려 도민 1인당 123만원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을 통한 기본소득 틀을 완성해가는 중이다.

만약 전남도 내 발전원이 솔라시도와 에너지고속도로 개통으로 확대된다면 에너지 기본소득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끝>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8일 오후 11시50분 고흥군 봉래면 염포마을 일원에서 민간개발 시험발사체가 국내 최초로 성공 발사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에서 국내 민간 기업 첫 ‘로켓 발사’ 성공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 시험발사...우주산업 중심지 도약 발판 마련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개발한 발사체가 고흥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 고흥군 봉래면 염포마을 일원에서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우나스텔라가 자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고흥이 국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사된 ‘우나 익스프레스 1호기’는 길이 9.45m, 총중량 2t, 추력 5t급 엔진을 탑재한 소형 발사체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10km를 비행하고 해상에 안전하게 낙하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제작

·운용한 시험발사체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첫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민간개발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성과다.

이로써 지난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선정된 고흥군이 민간 우주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 거점의 위상을 굳히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민간발사장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간 발사장이 완료되면 고흥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에 성공한 우나스텔라는 지난 2022년 창립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으로, 지난해 3월 전남도 및 고흥군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11개 기업 중 한 곳이다. 향후 국가산단 내 준공되면 산단 내 소형 발사체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시설을 입주·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를 향한 민간의 첫 발걸음이 고흥군에서 시작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우나스텔라의 도전과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발사장, 복합안보우주센터,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우주산업 핵심인프라 조성을 추진,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ACC서 반려견과 함께 전시 관람하세요”

6월 5일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6월 5일 반려견과 미술관을 함께 들며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준비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6월 5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에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행사는 오는 8월 광주시가 진행하는 ‘반려

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에 앞선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은 ACC 문화창조원 내 복합전시관 2·5·6관 3곳이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현장에는 반려견 관련 용품이 비치된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반려동물 문화나들이 특별주간’ 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1인가구 밀착형 생활정책 선보인다

연령대별·성별 특성 반영한 맞춤 정책 추진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생활밀착형 지원에 나선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솔로 투게더(Solo Together) 정책’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령대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

하는 ‘1인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역량 우수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인구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청년 1인가구는 사회관계망 형성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슬기로운 1인생활(재무·경제 교육), 미라클(실내스포츠), 맛남의광장(함께요리), 6개분야 가치활동(요리·집꾸미기·고민·취미·공유·자기성장) 등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균형식사와 생활불편 해소 등 중심으로 영양가득 균형식사(밀반찬 요리), 예술 여행 행복걸음(문화체험), 내마음 정원가꾸기, ‘뚝딱·톡(talk)탁’(경제·재테크·집수리부터 정리수납) 등의 사업대상이다.

건강관리와 외로움 해소가 관건인 노년 1인가구에는 오나라(오롯이 나를위한 건강라이프), 쓰담쓰담일예교실 및 더글로리인문학교, 반려동물과 함께하게 등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이 거짓을 이깁니다. 국민이 1당 독재를 이깁니다.

국민은 압니다.
누가 나라를 위하고,
누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인지.

1당 독재의 벼랑 끝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하는 단 하나의 선택,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알고보니 진짜는

김문수2

사전 투표 5. 29(목) - 30(금)

본 투표 6. 3(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